

# 목포대교, '자살대교' 오명 언제까지...



### 개통 2년 새 12명이나 자살

### 관계당국 책임 떠넘기기 일쑤

### CCTV설치·순찰 '면피성' 대책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목포대교에서 투신자살이 잇따르지만 관계 당국이 실 효성 있는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목포대교를 관리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 사무소, 한국시설안전공단 목포사무소, 목포시, 목포해양경찰, 목포경찰 등이 자살 사고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목포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택시를 타고 목포대교를 지나던 A(24·목포시)씨가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차한 뒤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경찰은 목포대교 개통(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다리에서 투신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리 난간(1.3m)이 올라타기 쉬운데다,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차를 타고 다리로 이동한 뒤 뛰어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제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지난 2012년 말 '자살 예방을 위한 관계당국 대책 회의'를 열었음에도, 현실적인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다. 관계당국은 급증하는 자살 사고의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저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관리책임이 있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한국시설물 안전공단에 업무를 위임했다", 해당 공단 측은 "우리는 시설만 관리한다", 목포시는 "목포해양경찰 소관", 해경은 "투신자 구조나 수색이 우리 몫"이라며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형편이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CCTV설치 및 감시 ▲순찰 강화 등을 내놓기도 했지만 교량 길이(3.6km) 등을 고려하면, '면피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체 사고 중 대교까지 걸어서 투신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보행자의 출입 등 다리 진입을 막는 검문소 운영 방안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아 자살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그물망 설치 등 난간 높이 조정 등 시설 개선 뿐 아니라 (신속한 구조를 위한) 가로등(지점) 별 위치 식별 번호판 부착 및 생명의 전화 설치 등 다양한 예방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 마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광안대교 등에 20대 가량의 'SOS생명 전화'가 설치, 운영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 광주송정역 'E-train' 운행

### 세미나실 등 갖춘 교육전용열차

### 코레일 내달 23일 화순제일중 첫 이용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송정역이 다음달 1일부터 세계 최초 교육 전용열차인 'E-train'을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train'은 '열차+IT+교육'을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안전을 더한 기차로 새로운 교육여행을 목표로 제작됐다.

열차에는 세미나와 영상교육이 가능한 예udy실, 방송시설 및 3D 프로젝트가 설치된 이벤트실, 게임과 놀이가 가능한 다목적실, 이색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전망실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단체여행객을 위해 낱파와 구간·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선 다음달 23일 화순 제일중 학교 2학년 학생 340여명이 처음으로 'E-train'을 이용한다. 학생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등을 관광할 예정이다.

김병기 광주송정역장은 "'E-train'은 열차와 IT기술, 교육을 융합해 단체여행의 새 장을 여는 창조경제의 일환"이라며 "수학여행·기업 연수·세미나·가족 여행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0    해질 04:19  
해짐 18:30    달짐 17:16

### 아침·저녁 쌀쌀해요!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6/29	보성	맑음	12/28
목포	맑음	16/27	순천	맑음	17/27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4/29
나주	맑음	13/29	진도	맑음	14/28
완도	맑음	16/28	전주	맑음	14/29
구례	맑음	12/28	군산	맑음	16/28
강진	맑음	13/28	남원	맑음	13/28
해남	맑음	13/28	축산도	맑음	19/24
장성	맑음	13/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북동~동	0.5~2.0	북동~동	1.0~2.0
남해	전남	북동~동	2.0~3.0	북동~동	2.0~3.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29	01:04	
	18:35	13:13	
여수	08:03	01:54	
	20:18	14:02	

### 주간 날씨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	☁	☁	☁	☁	☁	☁
17/27	18/25	18/25	16/26	16/26	15/26	14/24

### 생활지수

식중독	61
운동	50
빨래	90

##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광주시 북구는 지난 20일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옆 용봉초학습지 일원에서 송광읍 북구청장을 비롯한 평생학습 동아리·기관·단체 등 82개 팀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운암도서관 실버독서회 회원들이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나영주기자 mja@kwangju.co.kr

## 불법 원룸 눈감아준 건축사 5명 적발

### 광주지법, 허위서류 등 벌금형 선고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허가면적 이상 늘린 원룸 건축물에 대한 허위 검사 서류 등을 작성해 준 건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허위로 감리 업무를 보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담당구청에 제출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사 A(5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

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씨 등 4명의 건축사에 대해서도 70만~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0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등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거짓 사용승인조사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 선거캠프 관계자 점유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장성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전남 무소속 후보, 상대 매수 시도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 주인공이 상대 후보인 줄 알고 관련 보도자료를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수설에 휩싸인 후보가 무소속이고 유씨인 것을 보고 기사에 언급된 후보가 당시 경쟁하던 유두서 현 장성군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지역은 장성이 아닌 담양이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형준 전 화순군수 목매 숨져

21일 오전 9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A원룸에서 전형준(58) 전 화순군수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여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전 전 화순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서울에서 사는 여동생의 집에서 지내오다가 최근 A원룸에서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전 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낙마하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는데, 자신이 운영해온 건설사가 어려워지면서 힘들어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전 전 군수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안전한 제주여행의 시작은 SEA WORLD LINE!




저희 승무원 일동은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천후 초호화 크루즈 선박 씨스타크루즈호**

국제 분수 24,000톤급  
여객 정원 1,935명  
차량(승용) 500대

**고객의 마음을 믿고 갑니다 | 고객이 선택한 10년 연속 제주 기점 수송률 1위 항로**  
다양한 선박과 시간대! 어디에서나 편리한 접근성!



프리미엄급 초고속 카페리  
해남 우수영 로얄스타호 제주



국내 최대·최고 초호화 크루즈여객선  
목포 씨스타크루즈호 제주



심 속의 섬, 추지도를 경유하는  
목포 북쪽 핑크돌핀호 추지 제주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전화 1577-3567    씨월드고속훼리    검색

제주해상관광문화를 선도하는 씨월드고속훼리 베스트 파트너 제휴 여행대리점 및 물류업체 제공